| 현불 논단 |

행복의 수학적 비밀



윤재웅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학장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소욕지족'
현대에서 똑같이 적용은 어려워
불만족 이어지면 자존감 상실돼

만족, '물이 발목까지 찼다' 의미
목까지 욕망 채우면 위험해진다
발목까지만 채워야 몸 가벼워져

신장에서 발목까지 비율 약 4%
4%정도 욕망 충족, 만족의 범위

부처님께서 입멸 전 만족에 대해 설법하셨다.

"수행자여, 욕심이 적으면 근심도 적다. 욕심이 많으면 구하는 것이 많으므로 번뇌도 크다. 고뇌를 벗어나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만족을 아는 것은 즐겁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 가난하며, 만족을 아는 사람은 가난한 듯하나 마음 부유하다. 이것을 소욕지족(少欲知足)이라고 한다."

부처님의 만족론을 현대사회에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다. '지금 · 여기' 의 현실은 끝없는 경쟁사회다. 인생의 성공이란 무엇인가. 도심을 배회하는 자본주의의 유령은 귓가에 와서 속삭인다. '인생 성공은 남보다 빨리, 남보다 많이, 남보다 높이 오르는 데 있다', '만족하는 순간에 그대는 정체하거나 뒤쳐진다!' 겉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과 이웃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마음속 악마의 유혹을 벗어나기 어렵다. '나는 왜 집이 없지', '나는 왜 연봉이 이렇게 작지' 불만족은 결국 자존감을 흔들고 사회를 향한 울분과 비난을 키운다.

만족이란 말은 정의하기 어렵다.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마음 상태일까. 만족이란 한자 어휘를 보면 그렇지도 않다. 만족(滿足)은 물이 발목까지 찼다는 뜻이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언제든 자기 몸을 꽉 채우고 싶어 한다. 이런 욕망은 위험하다. 홍수에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무릎과 허리와 가슴을 지나 목까지 차오르면 금세 입과 코까지 잠기게 된다. 결국 숨을 쉬지 못해 죽게 된다.

욕망의 모습도 비슷하다. 재산을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면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어 한다. 욕망은 늘 '~하고 싶다' 의 형태를 가지는데 이것의 완성이 행복이라 착각하기 쉽다. 욕망이 절제되지 않으면 오히려 불행해진다. 욕망이 많을수록 몸은 무거워진다. 비유적으로 말해, 날아오를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세 가지 층위의 우주를 말씀하셨다. 이 삼계(三界)는 욕망, 성냄, 어리석음의 삼독(三毒)에 대응하는 공간 이미지다. 해탈이란 이런 심리상태를 벗어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다시 돌아오지 않기' 란 공간 물리학적으로 표현하면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여 겹겹첩첩의 하늘 바깥으로 날아가는 것이다.

욕심이 크면 몸이 무거워져서 하늘의 막을 뚫고 올라갈 수 없지 않을까? 발목까지만 채워야 몸이 가볍다. 가벼워야 하늘로 오를 수 있는 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평범한 가정주부에게서 들었다. 그녀는 아내의 지인이었고, 이웃종교인이었고, 평생 다른 사람의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일을 했다. 몸과 관련된 일을 오래해 온 생활인의 지혜였는데 공감이 가는 바가 많았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각이라는 아폴론 조각상은 흥미로운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비율이다. 손바닥은 얼굴 길이와 같고 가슴의 너비는 키의 4분의 1이다. 그중 압권은 황금비율이다. 전체 조각상의 폭과 높이, 몸통과 다리 길이가 1:1.618이다. 인간이 가장 아름답게 느끼는 비율이라고 한다. 마지막이 하이라이트다. 발바닥에서 복사뼈까지의 길이가 신장의 24분의 1이다.

만족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발목 높이까지만 채우기라면 바라는 것의 24분의 1, 그러니까 약 4%만 이뤄지는 게 아닐까. 심리적 소욕지족은 결국 인체공학적으로 4%의 충족이란 통계가 나온다. 욕심과 고뇌는 정비례한다. 욕심이 많아지면 고뇌도 커진다. 고뇌를 벗어나야 행복하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4% 정도의 욕망 충족이면 만족이다. 몸과 마음이 가벼워져서 자유로이 날아오를 수 있다. 행복의 수학적 비밀은 4%에 있는지 모른다.



유응오의 **문화 산책**
⑦ 바흐와 종교편향

공공 단체서 종교음악 공연 안된다

필자의 취미는 음악 감상이다. 가장 많이 듣는 노래는 비틀즈(Beatles)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Johann Sebastian Bach)의 노래이다. 비틀즈가 '록의 아버지' 라면 바흐는 '클래식의 아버지' 라고 비유할 수 있다.

바흐의 노래를 즐겨듣다 보니 필자는 칸타타, 마테수난곡, 요한수난곡 등 교회음악도 종종 듣는다. 바흐의 교회음악은 '숭고미의 극치' 라고 평가할 수 있다. 1723년부터 1729년까지 바흐는 140곡이 넘는 교회 칸타타와 수난곡들을 작곡했다. 바흐는 신앙심이 깊어서 그의 칸타타와 수난곡들의 악보 서두에는 항시 'Jesu Juva(예수여, 도움을 주소서)' 를 나타내는 문자 J. J.를 적어놓고, 곡의 말미에는 'Soli Deo Gloria(오직 하나님께 영광 있으라)' 를 의미하는 S. D. G.를 적어놓았고 한다.

최근 필자가 사는 김천시에서 시립합창단이 종교편향의 물의를 일으켰다. 시립합창단이 정기연주회에서 Wana Baraka(축복), The Prayer(기도)라는 기독교 찬송가를 공연했는데, 공연장에 있었던 한 시민이 후렴구에 할렐루야가 지속되는 찬송가를 듣고서 조계종 사회부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다행이 김천불교사암연합회가 항의 방문하자 김천시장 등 관계자들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시립예술단의 공연 전에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는 등 재발방지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합창단 관계자들은 "합창음악은 대부분 서양음악의 곡들인데 서양음악은 교회음악에 뿌리를 두고 있고, 애초 음악은 기원(祈願), 염원(念願), 찬송(讚頌) 등 종교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바흐의 음악에 대한 찬사에서 밝혔듯이 교회음악이 인류의 중요한 문화유산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립 내지는 시립합창단이 특정 종교를 찬양하는 공연을 하는 것은 다종교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종교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국립 내지는 시립합창단은 공직유관단체이고, 공직유관단체는 종교차별의 금지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대구불교총연합회가 최근 4년간 시립합창단의 공연 목록 193곡을 분석한 결과 절반에 육박하는 88곡(46%)이 기독교 찬송가였다. 이런 종교편향 사례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광역단체나 지자체가 예술단 운영조례에 종교차별 행위 금지, 곡 선정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채용계약서 상 종교중립 의무이행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

일부 기독교 인사들은 불교문화재와 불교전서에 많은 국고가 지원되는 것을 종교 편향적 사례라고 주장하지만, 불교문화재와 불교전서에 국고가 지원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불교문화재와 불교전서에 국고가 지원되는 이유는 국가가 보존해야 하는 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광역단체와 지자체가 지방지정문화재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은 의무이다.

아무리 훌륭한 음악일지라도 그 노래를 들으면서 불편한 시민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특정 종교음악은 국립 내지는 시립예술단에서 공연되어서는 안 된다.

〈소설가〉

社 說

조계종 차기 총무원장에 거는 기대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스님이 마지막 관문인 원로회의 인준을 통과하고 차기 총무원장에 확정됐다.

진우 스님은 원로의원 스님들에 감사 인사를 전한 직후 조계사 대웅전으로 이동해 부처님전에 삼배로 고불하고 "사부대중과 함께 불교중흥의 새 장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첫 공식기자회견에서 스님은 소통, 포교, 교구라는 3대 종책기조를 토대로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차기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향한 불교계 안팎 언론의 관심은 뜨거웠다. 1994년 종단개혁 이후 단일후보의 무투표 당선이라는 첫 사례를 만들었다는 점 때문이다. 선거 없이 화합으로 이뤄진 사실상 추대 절차였기에, 차기 총무원장을 바라보는 종도들의 기대 역시 그만큼 높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진우 스님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종단과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미 종단 여러 소임을 두루 거쳤고 후보 출마 직전까지 교육원장 소임을 맡았기에, 종단 안팎의 현안에 대한 고민도 깊다. 종책자료집에 담긴 다양한 분야의 종책공약 하나 하나가 그 결과물이다.

선출과정에서 이미 종단 안정과 화합이라는 결실을 확인했다. 남은 것은 임기 동안 종책과제들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원력이다. 진우 스님이 총무원장 후보로 출마한 순간부터 최종확정된 순간까지, 매번 소통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그 모든 일들이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불교가 위기라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사부대중이 함께한다면 분명 희망은 있다. 불교중흥의 새 장을 열겠다는 첫 일성이 결실을 맺길 기대해 본다.

추석 나눔으로 소외계층에 온정을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하며 맞게된 추석이다. 풍성한 한가위로 불리는 추석이지만 사회 곳곳에는 짙은 어둠이 걷히지 않고 있다.

우리 주변에는 의식주 문제와 생활고에 시름하는 소외계층이 많다.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도 그런 이들이다. 9월 1일 쪽방도우미봉사회가 진행한 추석맞이 자비나눔에 길게 늘어선 줄은 이들의 애환이 느껴지게 한다. 몸이 아픈 장애인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떡과 과일을 받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려 선물을 받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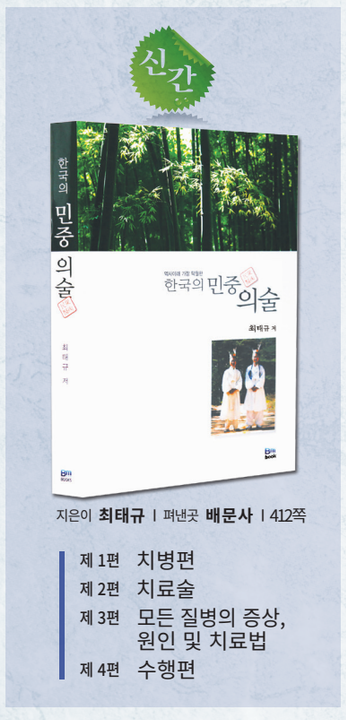
우리는 전통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온 슬기로운 민족이다. 돌봐주는 사람 없어 외롭게 살아가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홀몸노인, 소녀소년가장, 장애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자비심을 모아가야 할 때이다.

이와 함께 이러한 자비나눔을 행하는 단체들을 후원하는 권선도 이뤄져야 한다. 쪽방도우미봉사회는 현재 무료급식소 가건물에 대한 철거 강제이행금이 매년 불어나 3000만원을 넘긴 상태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자비행을 펼칠 수 있도록 행정적, 법률적 지원과 함께 이행금 납부를 위한 후원이 절실하다.

어려운 사람들이 현재의 경제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자신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 아끼고 절약한 금전과 물품을 선뜻 내놓는 일이 생활화 될 때에 진정한 불국토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은 더욱 고맙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크고 작은 사랑 하나하나가 모아져 더 큰 자비의 공동체를 이뤄가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 축하 광고 접수 받습니다

귀의 삼보 하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진우스님의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당선을
봉축 드리며 이에 아래와 같이 축하광고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무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더욱 밝아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제37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 축하 광고
■ 광고크기 : 5단컬러 100만원, 1/2단컬러 50만원
■ 접 수 처 : 현대불교신문사 영업기획국 02)2004-8216
■ 담 당 : 표경희부장(010-7733-9343) jabi2018@naver.com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지사지국 접수처 ❖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대구지사	010-2813-8008	손문철	영주지국	010-9373-3778	박영애